

작품 개요

「주여 오소서」는 유경손 작시로 작곡가가 47세 때인 1969년 5월 22일 작곡되었고, 1972년 5월 12일 후렴 만을 합창으로 수정하였다. 이 곡은 1969년 전영복(田永福, 1908~1980) 목사님이 서울성남교회에 오셔서 특별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작곡하여 작사자이자 부인인 알토 유경손(柳慶孫, 1921~2011)의 독창으로 초연되었으며, 전영복 목사님께 바쳐진 곡이다. 이 곡은 1976년 3월 25일 『나운영 성가합창곡집 (1)』(교회음악사)에서 출판되었다.

전영복 목사는 일본 사람으로 오다유지가 본명이다. 관서성서신학교에 다니며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하던 전영복 목사는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 3·1운동 때 저지른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알게 된다. 큰 충격을 받은 전영복 목사는 이때부터 방향을 바꾸어 21세에 단신으로 목포에 상륙하였다. 이때부터 한국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다가 투옥 당하기도 하였다. 말년에는 일본에서 '재일 한국인 인권운동' 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.

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musical score on aged paper. At the top left, it says "No. _____". In the center, the title "주여 오소서" is written in large, bold Korean characters. To the right of the title, there are handwritten notes: "유경손 작곡" (Composed by Yoo Gyeong-sun), "나운영" (Na Un-yeong), and "1969. 5. 22". Below the title, it says "전영복 목사님께 드림" (Dedicated to Pastor Jeon Young-bok). On the left side, there is a handwritten note "M.M.J. = 66". The score itself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staves. Each system has a piano accompaniment part on the left and a vocal line on the right. The piano part uses a grand staff (treble and bass clefs) with a 2/4 time signature. The vocal line is written in a single staff with a treble clef. The music is in a key with one sharp (F#) and a 2/4 time signature.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forte (f) dynamic, the second with mezzo-forte (mf), and the third with a piano (p) dynamic.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a fermata over the final note.